



# ARAMCO 와의 SAMAREC 의 통합

## 머리말

지난 6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 대변인은 각료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상류부문담당 국영석유사인 *Saudi Aramco*社(이하 *Aramco*)와 정제 및 판매 담당 국영석유사인 *Samarec*을 합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생산, 정제, 수송 및 판매 등의 모든 사업을 *Aramco*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Aramco*가 *Samarec*을 흡수통합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완전한 합병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여 가량 소요될 것이나, 명시적인 합병의 효력은 6월 15일부터 발효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Aramco*의 *Samarec* 합병은 이제 *Aramco*가 명실상부하게 석유생산에서 제품의 판매에 이르는 사우디의 전석유산업을 통괄하게 되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세계 석유산업에 있어서 강력한 수직통합석유사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대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산업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영석유사들의 이러한 조직재편은 그 자체로 사우디 석유정책에 있어서의 모종의 '변화'를 투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변화'의 내용이나 성격이 어떤 형태를 띠든지간에

특히『사우디 석유』혹은『석유산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소비국들로서는 변화의 양태나 진전여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兩社 통합발표 자체는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Aramco*의 정제부문 통합 아이디어는 80년대말의 석유산업 재편시부터 검토되었던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정부는 오랫동안 석유산업의 조직재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통합도 이러한 개편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사우디 석유산업 전반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통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兩社 통합을 초래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의의, 통합에 따른 변화의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이같은 변화의 파급효과 및 그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 2. 사우디 석유산업부문의 조직체계

사우디의 석유산업 조직은 크게 *Saudi Aramco*社와 *Samarec*으로 나눌 수 있다.

*Saudi Aramco*(*Saudi Arabian Oil Co.*)는 주로 석유 생산 등 상류부문 활동을 담당하는 국영석유사이며, *Samarec* (*Saudi Arabian Marketing & Refining Co.*)은 주로 정제 및 판매사업을 담당하는 하류부문 국영

석유사이다.

세브론, 모빌, 텍사코, 엑슨 등이 공동출자해서 사우디 내에 설립(1933년, CASOC社로 출발)한 *Aramco*社가 *Saudi Aramco*의 전신이다. *Aramco*社는 1980년에 1976년 시점으로 소급하여 국유화되었으나, 기존의 4개 미국 모회사가 여전히 사우디 정부를 대신하여 운영을 계속하였다. 그 후 1988년 사우디 정부가 *Saudi Aramco*社를 설립, *Aramco*社의 자산 및 운영을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Saudi Aramco*는 2,500억배럴의 석유확인매장량(세계전체의 1/4)을 가지고 있는 상류부문의 최대회사로서 사우디 석유 및 가스생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탐사, 원유생산, 원유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약 8백만b/d의 원유를 생산중이며, 금년말까지 지속가능 생산능력을 1천만b/d로 증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라스타누라 정유공장(30만b/d)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합작 정유공장 설립 등 해외 하류부문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Samarec*은 1988년 12월 17일, *Petromin (General Petroleum Minerals Organization)*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사우디 국내 및 해외에서의 하류부문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전에 *Petromin* 산하에 있던 많은 정유공장들은 *Samarec* 산하로 통합되었는데, *Samarec*은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리야드 정유공장 등 3개 정유공장과 주베일 정유공장 등 수출용 3개 외국합작 정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국내유통 및 제품의 해외수출판매사업 등도 담당하고 있다.

### 3. 통합의 배경과 내용

*Samarec*의 해체와 *Aramco*社로의 흡수통합은 6월 14일 파드 국왕이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6월 15일부로 사우디 국내의 모든 정제 및 판매시설과 사업 등은 *Aramco*社로 흡수 통합하게 된 것이다.

각료회의는 *Aramco*가 생산, 정제, 수송, 판매 등

석유산업의 諸단계들을 통괄하는 단일의 국영 수직 통합석유회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같은 결정은 히삼 나제르 석유장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약 10개월 전부터 나제르 석유장관은 비밀리에 兩社 합병건에 관해 심도있게 검토해 왔으며, 약 2개월전 쯤 각료회의에 이 안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 놓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사우디 석유산업구조의 재편이야말로 나제르 석유장관 재임기간 중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자 명제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나제르 석유장관으로 하여금 이렇듯 兩社 통합을 추진하게 한 배경 혹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Samarec*의 정제능력 확장계획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 제고측면과 관련, *Aramco*로 하여금 이같은 정제능력 확장계획을 권장하게 한 것은 그간 *Aramco*가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으로 보인다. *Aramco*는 석유산업부문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왔으며, 관리나 기술적인 숙련, 그리고 인력 트레이닝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同社는 자체적으로 30만b/d의 라스타누라 정유공장도 가동하고 있는 등 정제부문에 있어서의 경험도 충분한 상태이다.

이에는 또한 *Aramco*의 자금접근(동원)능력이 월등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당초 *Samarec*에 의해 입안, 개시된 바 있는 정유공장 설비고도화나 정제능력 확장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자금동원능력이야말로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Aramco*가 언젠가는 국내 정제 및 제품판매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세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1987년 나제르 석유장관이 사우디 석유산업 재편계획을 수립, 개시할 당시부터 대두되어었다. 사실상 *Samarec*의 설립을 통해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정유공장들을 통괄시킨 것 자체도 이번 *Aramco*의 *Samarec* 흡수통합 결정으로 귀결된 자국 석유산업 통합 조치의 첫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Samarec* 설립 당시 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석유산업 재편계획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단 국내 정유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의 하류부문 투자에도 합리성을 가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원래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Aramco*와 *Samarec* 간의 경쟁은 사우디 석유산업의 전체목표 추구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예컨대 *Samarec*의 국제적인 제품판매전략은 *Aramco*의 미국(텍사코社와의 합작기업인 *Star Enterprise*社를 통한 미국내 60萬b/d 규모 정제사업) 및 한국(쌍용정유와의 합작 정제사업)에서의 제품판매 및 정제사업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단일의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쓸 경우 훨씬 이익이 크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셋째, 합병의 촉발요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는 최근 유가의 하락추세를 들 수 있다. 사실 지난 수년간을 통털어 보아도 사우디가 요즘처럼 유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때는 드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있는 6월 *OPEC*(석유수출국기구) 총회에 이르기까지 사우디는 유가상승을 위한 회원국들의 쿼타준수를 여러차례 촉구해 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Aramco-Samarec*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가? 우선 *Aramco*는 *Samarec*이 수행해 오던 모든 업무들을 인계받게 된다.

첫째, *Samarec*이 운영해 오던 내수용 3개 국내 정유공장의 운영을 맡게 된다. 이들 정유공장, 즉 안부 I (17萬b/d), 리야드 (13萬b/d), 그리고 제다 (10萬b/d) 소재 정유공장들은 현재 설비고도화 계획의 대상으로서 상당한 정제시설 고도화 및 생산능력 증대가 예정되어 있다. 당초 *Samarec*의 설비고도화 및 생산능력 확장 10개년 계획(50億달러 소요)에 따르면, 제 1단계로 1995~1996년까지 이들 세 정유공장들의 설비고도화(30億달러 소요) 작업을 이룩, 가솔린 생산을 현재의 9만3千b/d에서 20만8千b/d(모두 상당량의 개질을 거친 무연휘발유임)로 증대시키고, 중유생산을 현재의 12만2千b/d에서 9만b/d로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안부 I 정유공장의 정제능력을 17만b/d에서 30만b/d로 증대시킬 계획도 있는데, 이는 올해 10월 경 착수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초까지로 개시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의 합병으로 이러한 계획들은 *Aramco*의 관할로 넘어오게 되었으며, *Aramco* 자체 소유의 라스타누라 정유공장(30만b/d)의 설비고도화 및 궁극적으로는 원래 생산능력('90년 11월의 화재전에는 50만b/d)으로의 복귀계획(10억달러 상당)과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의무가 지워지게 된 것이다.

둘째, 사우디 전역에 걸친 *Samarec*의 기존 석유제품 판매량을 관할하게 된다.

셋째, *Samarec*이 수행했던 정제제품, *LPG* 등의 국제적인 판매활동을 맡게 된다.

*Samarec*은 3개의 수출용 외국합작 정유공장을 통해 약 38萬b/d의 제품수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Samarec*과 판매계약(정제제품, *LPG* 등)을 맺고 있는 고객들의 계약은 시효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가 *Samarec*에서 *Aramco*로 변경될 뿐이라고 한다.

네째, 兩社의 합병은 외국과의 합작 정유공장들의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Petromin-Mobil*社 합작의 안부 II 정유공장(28萬b/d), *Petromin-Shell*社의 주베일공장(25萬b/d), 그리고 *Petromin-Petrola*社의 라비그(32萬5千b/d) 정유공장 등은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적, 관리적 조직들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들 정유공장 생산제품의 수출판매는 역시 *Aramco*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이번의 합병으로 몇몇 주요 해외 하류부문 사업에 있어서 변경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석유화학부문 담당 국영석유사(*Sabic*)까지 합병하여 *Aramco*의 규모를 증대시키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한다.

여섯째, 兩社는 서로 상이한 회계 및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계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Aramco*측에서는 *Abdul Aziz al-Hokail* 부사장을 필두로 한 통합업무 관장 *task force*팀을 만들었고, *Samarec*측 또한 이와 유사

한 임시조직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전반적인 감독과 조정업무는 *Nazer* 석유장관이 맡게 될 것이다.

#### 4. 합병의 영향과 전망

첫째, 국내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자금조달능력 및 월등한 관리능력을 가진 *Aramco*가 *Samarec*의 정제 설비 고도화 및 정제능력 증강작업을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일관되고 통일적인 기획과 사업추진을 통해 여러 고도화 계획 및 정제능력 증대작업을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국제 정유업계 및 제품시장에서 *Aramco*의 아이덴티티가 보다 확고해질 것이다. 상류부문에서 세계 최대석유사로 군림하고 있는 *Aramco*는 이번의 합병으로 *Samarec*의 정제 및 판매부문을 추가하여 하류부문에서도 엑슨과 셸사에 뒤이은 제3위 규모의 회사가 되었다. 즉, 세계 최대의 수직통합석유사로서, 엑슨 및 셸사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상대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Aramco*의 경우 자금력이나 기술력, 그리고 판매전략 등의 면에서 이들 메이저들에 비해 뒤쳐지고는 있지만, *Samarec* 합병을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된 의사결정체제를 가지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유연성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시장웨어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들 메이저 석유사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시장에서 그 비중을 보다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Aramco* 자체로서는 사업전략상 운신의 폭이 증대될 것이며, 보다 유연성있는 거래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원유시장과 제품시장간의 관계를 조율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설 수 있을 것이다. 원유생산업자와 정제업자로서의 역할을 균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보다 유연성있는 거래전략의 채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과거 *Samarec*이 제품과잉 혹은 부족상황에 처해 있을 때 *Aramco*의 합작 정유공장은 그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과 같은 전체적인 부조화 현상은 해소되게 될 것이다. *Aramco*는 이번 통합으로 시장상황에 부합되고 시기적절한 대응전략을 취해 나갈으로써, 생산 및 판매정책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측면을 종합해 볼 때 *Aramco*는 세계 최대 메이저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

<주간석유뉴스>

### ■ 단신 ■

## POWER-GEN ASIA '93

향후 발전시장을 조망하는 *POWER-GEN ASIA '93*이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다.

*PENWELL CONFERENCE & EXHIBITION*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최근 발전형태의 추세를 보여주는 각종 기기와 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다.

최근 아시아지역의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은 전원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

고 있으며 또 일부 국가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도 정부의 전원개발계획에서 유류발전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B-C유류의 수요창출이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전시회는 우리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문의처 : SINGAPORE TOURISM SERVICES, 전화 563-8223, FAX 564-9288>